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키마가 있는 시민강좌 <88>

담도질환의 진단

전남의대 소화기내과 박창환 교수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회원

증가하는 '담석' 초기증상은 피곤·소화불량

담도에 발생하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크게 담석증과 담도암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최근 담석증 및 담도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식생활의 변화, 다이어트, 고령이 관련이 깊고 담도암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고령 환자에서 발생한다.

우상복부·상복부 통증 유발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속

◇담석증=크게 담석의 성분에 따라 폴리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폴리스테롤 담석은 비만, 다이어트와 연관돼 주로 발생하며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질환과 연관된 흑색석, 담도의 염증성 질환과 연관된 갈색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담석증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담도성 통증을 들 수 있다. 우상복부의 통증, 피곤,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을 담석과 연관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담석과 연관된 분명한 증상은 담도성 통증이다. 담도성 통증은 우상복부 또는 상복부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최소 15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4시간 지속되는 통증으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않는다.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도성 통증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과 지속성이다. 따라서 수초간 또는 수분간 지속되는 복통은 담석을 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시간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 즉 수분간 아프고 수분간 쉬었다가 다시 아픈 통증은 전형적인 담도성 통증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매일 나타나지도 않는다. 수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도성 통증은 담석 외에도 오디팔약근 기능이상, 담낭기능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담석이 없는 경우에는 담낭과 오디팔약근의 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창환 전남대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담석증과 담도암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통성 황달·붉은 소변

체중 10% 감소때 의심

◇담도암=담도암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무통성 황달을 들 수 있다. 소변 색이 물리색 또는 붉은 빛을 보이고 체중이 10%이상 감소하면 강력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무력감, 피곤 등을 호소하고 변이 회색으로 변할 수 있다.

담도암의 진단에는 다양한 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담낭암 및 간내담도암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복부 초음과 검사를 선별 검사로 사용한다.

총담판 및 간외담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부 시리를 먼저 고려한다. 그러나 초기 간외담도암의 진단은 복부시리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초기 간외담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담도내 세경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MRCP가 도움이 된다.

간외담도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초음파를 통한 세포진 검사를 하거나 내시경 역생성췌담도조영술로 세포진 검사 및 생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초기 담도암에서 조직검사를 한다 해도 진단될 확률이 50% 미

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에서 확진이 되지 않아도 수술을 권유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권유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담도 질환 중 담석증은 전형적인 담도성 통증을 호소하

는 경우 복부 초음파 및 담도 초음파를 이용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담도암의 경우에는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고도 확진이 되지 않아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13일 '콩팥의 날 시민강좌'

콩팥병의 예방 및 치료, 관리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
◇ 시민강강
강좌 내용

▲ 콩팥병이란?(신장내과 마성권 교수) ▲급성콩팥병의 예방 및 치료(신장내과 김수현 교수) ▲당뇨병, 고혈압과 만성콩팥병(신장내과 최준석 교수) ▲만성콩팥병의 치료(신장내과 김창성 교수) ▲노인의 만성콩팥병(신장내과 강용운 교수) ▲콩팥병 환자의 간호관리(신장센터 유미자 수간호사) ▲희귀난치질환 통합케어센터 사업소개(전남대병원 최윤희 사회복지사).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
(옹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 21개(1층 상가 2칸, 룸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레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공사완료
고급주택, 정남향

(상가 원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수완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1층상가(17.5평) 대방5층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아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1층(18평) 대방5층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아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저렴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원룸형 임대 즉시입주가 풀온(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주)대신증합건설개발 ☎ 010-6670-9800 / 062)952-598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소핑거리

154평
(매가 8억5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 이상)

온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급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 광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성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 의원, 사옥, 학원, 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 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 2천선에 월500선 9억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7평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 18억 2천

• 동구 예식장건물을 대지 1924㎡(582) 건물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은행 18억 매도 26억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

(442)6층 건물 3656㎡(1015)은행 26억 가능 매도 36억3천

• 임대,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투룸, 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 ~ 40, 방크고 개끗함

• 학군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담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당군 농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

(198)주택 162㎡(49) 전월세 적합 9000만원

• 남평을 오계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투자, 매월동 매월서 주거 및 경관좋은 빌라, 디세대 적합 자연

녹지 5485㎡(1659) 매도 31억 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500에 40선에 임대 1층 가게

22평은 전체나 분할해서 임대가능함 임대조건은 타협가능함

• 장성을 그린밸트산 4만평 3억 8천만원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층 주거지 674㎡(316)디카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삼각동 2층 주거지 618㎡(187)원룸 적합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생명의 씨앗' 장기기증

“죽음이 남긴 선물, 누군가에게는 새 삶”

호남 기증 비율 낮아…캠페인 강화돼야”

김성환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인터뷰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자는 한해에 300~400명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30% 수준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할 경우, 최소 3명에서 많게는 9명의 환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광주일보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역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의 도움말과 인터뷰 등 연재물을 게재한다.

김성환(외) 장기이식센터장으로부터 장기이식 실태와 현황, 향후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역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나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지.

▲조선대병원은 지난 1991년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1999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간 이식수술을 성공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장기 이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장기 이식 수술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2년 충청·호남 최초 혈액형불일치 신장이식수술 성공, 2013년 6월 충청·호남 최초 간·신장 동시 이식수술 등 지역 대학 병원으로서는 보기 드문 고난이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뇌사기증자 가족의 동의 시기 가 너무 늦어서, 기증자가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기증 적합 절정검사가 진행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마음이 아프다. 장기를 기증받지 못하면 숨길 수 밖에 없는 생명까지 계산한다면 그 순손은 너무나 막대하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하는 것은.

▲대중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더 강화되고 일상화돼야 한다. 사람들은 뇌사자 장기기증이 좋은 일이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지나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뇌출혈로 가족 중에 누군가 뇌사주자가 되는 경우, 당황하고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가족이 기증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가족이 결정했으나 이미 폐혈증 상태로 진행돼 장기기증시기를 놓친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건강할 때 장기기증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더 자주 필요하기

▲주변에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일단 기증 관련 검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증자는 건강한 상태에서만 기증하기 때문에 기증 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증은 취소된다. 어떤 의료진도 기증자의 건강을 손상시키면서 장기이식수술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에게 기증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으나 기증 부적합으로 판정돼 의학적인 사유로 장기기증을